해양·에너지산업 선도…신해양시대 중심대학 '우뚝'

전남 주요 대학들이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 에너지, 조선 등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역 혁신의 중심축이자 '지역 인재 취·창업-지역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역산업 혁신 등 전남 RISE권역별 중심 대학의 중점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 등을 살펴본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역 기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서남권 중심 허브 국립대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목포대는 RISE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지역-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학생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 솔루션을 제공한 'MNU 명량 웨이브' 리빙랩 캠프 활동 모습. 〈목포대학교 제공〉

지역대학이 뛴다…전남도 RISE 사업

〈1〉국립목포대학교

지·산·학 동반성장 혁신 생태계 구축

서남권 특화산업 중심 교육과정 개편

청년 유출·지역 소멸 현안 해결 앞장

글로컬대학 연차 평가 1위 역량 입증

대학 통합으로 전주기 교육 플랫폼도

국립목포대학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남권 중심 허브 국립대이자 글로벌 해양·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대학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대는 'MOVE 2025 지역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최고 국립대'라는 비전 아래 지역 기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 민간 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글로컬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산업-대학 연결…혁신 플랫폼 구축

목포대는 RISE 사업 핵심 과제로 지역 산업 중심 교육 혁신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조선·바이오·AI데이터·K-스포츠 등 서남권 특화 산업을 구심점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해 현장 중심 학습 모델을 강화했다.

또한 현장 기반 프로젝트, 지역 연계 캡스톤디자인, 기업 수요 기반 교과 개편 등 실무형 교육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 하계부터 지역 기업·공공기관 협력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역 정착형 취업 기반을 마련했다.

주제 지정형 캡스톤디자인 비교과, 디지털 창업 경진대회,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DAY 등 학생 주도 혁신 프로그램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초광역권 RISE 공유 협업 캡스톤디자인은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 CIP/COP이 상금을 후원하며 주목받고 있다. K-컬처 스포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문화·운동재활 분야 전문인력 공급 체계도 구축해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목포대는 조선·에너지·AI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와 실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선급(KR)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스마트야드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해 차세대 조선 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AI 데이터 혁신 네트워크 교류회, 에너지 신산업 산학협력 교류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지역 대학 산업체 간 공동 연구와 미래 전략 협의를 이끌어내 초광역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목포대는 고령화·청년 유출·지역소멸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시·군 동반성장 실무위원회에서는 상권 활성화, 주민 생활문제 해결, 리빙랩형 사업 추진 등 지역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톱머리 상권 리빙랩'은 상권 재생·공동체 활성화·상인회 구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5 썸썸 프로젝트 MNU 명량 웨이브'는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높였다.

◇해양·그린에너지 글로벌 TOP3 목표 '박차'

목포대 글로컬 사업의 핵심은 '해양'과 '그린에너지'다.

목포대는 전국 최초로 영암 대불산단과 나주 에너지밸리산단 등 2곳의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해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사이언스파크(GSP) 구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영암·나주·목포를 하나의 산업벨트로 엮고 중심에 GSP를 구축해 세계 유일의 그린해양에너지 R&D 및 인재 양성 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목포대학교 학생들이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동 모습.

목포대는 영암 대불산단과 나주혁신도시에 각각 글로벌 오션 사이언스 파크, 글로벌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기술개발(R&D), 실증, 산학협력, 글로벌 인증,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지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6대 글로벌 Only-1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LNG-수소극저온시스템연구센터는 한국형 극저온 화물창 성능평가 실증에 성공해 LNG 화물창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매년 1조원 규모의 해외 로열티 지급 구조 탈피를 위한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는 LS전선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상풍력 전력케이블 국산화에 성공, 4조원 규모 글로벌 수출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첨단용접센터, SMR선박연구소, 해상풍력 ICT연구센터, 차세대해양전력기술연구소 등도 첨단 기술의 국산화 상용화 국제 인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랩'은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의 핵심 모델이다. BIXPO 2025 발명·기술혁신대전에서 은상 수상, 전남도 대학생 무한도전 CES 프로젝트 선정 등 다양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목포대는 교육부가 20개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차 평가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최초 2·4년제 통합…순천대와 통합도

목포대와 전남도립대의 통합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2·4년제 통합 국립대학이 올해 3월 출범한다.

목포대는 도림캠퍼스(본교)와 담양캠퍼스를 포함한 총 7개 캠퍼스 체계로 재편되며 전남 최대 규모 지역 거점 국립대로 자리잡게 된다.

대학 통합은 전문학사→학사→석·박사→취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고등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숙련 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 지역 산업 인력 수급 안정성이 높아지고 청년의 진로 선택 폭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목포대는 국립순천대학교와의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대표하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은 전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국립대 체계 재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목포대-순천대는 전남의 미래 전략산업을 아우르는 초일류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서부권의 조선해양, 에너지, AI 산업과 동부권의 스마트 농수축산, 그린바이오가 하나의 대학 안에서 연결되면서 지역 산업 구조의 대전환과 기술 혁신을 이끄는 초광역형 연구·교육·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양시원 기자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대학·지역·산업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 완성"

"글로벌 교육 확대, 유학생 유치, 지역사회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목포대 미래 발전 비전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여는 대학', '정체되지 않고 미래로 움직이는 혁신 대학'을 토대로 지역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적 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며 조선·해양, 해양환경·안전, 해양신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제고를 넘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전남 서남권 핵심산업인 조선·해양, 바이오, AI데이터, 에너지, K-스포츠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고도화, 기업 참여형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기반 학습을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 정책은 목포대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산업 신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성화 경쟁력과 국제적 연계를 강화해 목포대가 지·산·학·연을 연결하는 플랫폼형 거점 국립대학이자 전남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총장은 "목포대는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실험실이자 실행 주체가 되고자 리빙랩 방식을 통해 지역민, 지자체, 기업, 대학이 함께 생활 현안을 발굴·해결하며 그 과정이 교육과 연구로 환류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조선·해양, AI·디지털 전환, 재생에너지, 바이오, 해양환경·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과제와 함께 청년 정주, 지역 소멸 대응, 보건·복지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총장은 "목포대는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며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립대학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